

김상곤 사회부총리 청문보고서 전격 채택

여야 대치정국 풀고 이제 상생의 길 가자



김상곤 부총리

풍부한 경험·전문성 갖춰 국민의당 채택 협조로 통과 민주당 협치의 길 열고 국민의당 혁신에 올인 보수야당 대승적 결단 보여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전격적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며 “논문표절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나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인사청문 채택의 건을 상정, 가결이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권과 보수 정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인

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고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 정국에서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사회적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에 대해 교육 혁신이 한시가 급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김상곤 부총리 임명을 정쟁의 소재로 쓰기 보다는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승적 결단을 통해 보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여권도 적폐 청산 등 사회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 창출의 감각과 집권 초반 여론의 지지에 취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채택 등과 같이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인 혁신에 올인하는 길만이 국민의당이 생존 조건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여야는 정쟁의 구도에서 벗어나 시대를 바라보며 경쟁해야 한다”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십 구축이 결국 정당의 정치적 비전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유미 단독 범행..안철수 무관”

국민의당 ‘재보 조작’ 진상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검증 실패 부정할 수 없지만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재보 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3일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보여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당이 (재보조작에 대한) 검증을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면서 이갈

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5일 의혹 재보 조작 경위에 대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한테 ‘파스스에 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4월 말경부터 문준용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면서 “이유미 씨는 파스스 출신 김익순이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여러 이야기를 전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조작해 제공했으며 음성녹음까지 남동생을 동원, 조작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유미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6월 26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조작 사실 일체를 6월 24일

을 전후해 대선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다”며 “이용주 의원은 다음 날인 25일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김인원 부단장,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등과의 5차 회동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미 씨가 5차 회동에서도 ‘이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요구 압박에 못 이겨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하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단장은 “5월5일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당 내에서 관련 내용을 안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면서 “안 전 대표의 휴대전

화 기록 등으로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등이 5월5일 이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27일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6일 만에 이번 사태가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지도부 개입 등의 의혹을 조기에 털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당 지도부의 개입이나 암묵적인 인지 정황이 드러난다면 국민의당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정계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검찰 수사 결과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확인된다면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해체나갈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찾은 오바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자마자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준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대신 G20 정상회의 준비회의를 했다. 오는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방미과정에서 거둔 외교성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공약한 외교·안보·통일 어젠다를 본격적으로 구현해내는 무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

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준비 독일서 통일 메시지 발표 주목

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G20 회의 기간 외교가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다자외교 이면에서 숨 가쁘게 펼쳐질 양자외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국들과의 첫 개별적 정상회담이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5~6일로 예정된 독일 방문에서 통일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

림픽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40여 분간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많은 한국인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7월 29일(토)~8월 14일(월) / 5회
비엠펙항공(VJ항공) : 3박5일/총 13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중장점
062)228-1199

<p>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p> <p>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p> <p>총 상품가격 799,000원~</p> <p>현지지출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 특식 : 3회(오삼불고기/라비엣 레스토랑/노니보섬 정식) 🕒 쇼핑 : 4회</p>	<p>하나골프 AVGF10</p> <p>[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p> <p>총 상품가격 1,099,000원~</p> <p>현지지출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특식 : 2회(오삼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쇼핑 : 3회</p>
--	---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관람일자 : ~ 17년 7월 16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중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원유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로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한인화인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